

자료제공 : 2024. 6. 4.(화)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6월 4일 오전 10:3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아리수본부 생산부

생산부장

어용선

02-3146-1301

생산관리과장

김형준

02-3146-1310

사진 없음 사진영상 있음 쪽수: 7쪽

관련 누리집
(메뉴)

<https://arisu.seoul.go.kr/>

서울시, 병물 아리수 100% 재생페트로 생산... EU·글로벌기업보다 수년 앞선 시도 (PET)

- 지난해 30%에서 올해 100%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페트로 아리수 생산 시작
- '30년까지 재생원료 30% 사용목표 EU, 50% 목표 코카콜라·펩시사(社)보다 한발 앞선 행보
- 올해 총 65만병 생산 예정... 폐플라스틱 16톤 재활용 가능→17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
- 페트 제작시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고 무리벨·잉크없는 레이저 각인처리 등 혁신적 시도 계속
- 선도적 탈 플라스틱 정책이자, 공공이 앞장선 지속가능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우수 사례

- 서울시가 환경의 날(6월 5일)을 앞두고 서울시 대표상품인 병물 아리수를 100% 재생플라스틱으로 만든 페트병에 담아 출시한다고 밝혔다. 지난해 병물 아리수에 국내 최초로 생수·음료병에 30% 재생플라스틱을 사용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혁신적 시도다.
- 아울러 서울시만의 대표성과 특징을 알리기 위해 뚜껑을 서울색인 '스카이 코랄'로 바꿨고, 시각장애인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점자표기도 추가했다.
- 시는 6월 이후 올 한해 350ml 45만병, 2ℓ 20만병 등 총 65만병의 병물 아리수를 생산할 계획으로, 이렇게 할 경우 폐플라스틱 약 16톤을 재활용할 수 있어 신생 플라스틱 대비 약 17톤CO₂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.

※ 온실가스 저감 효과 : 약 17톤CO₂eq

17,113kg = 15,700kg(올해 병물 아리수 공병 생산중량) × 1.09*

* 신제 PET 3.22kgCO₂eq/kg, 재생PET 2.13kgCO₂eq/kg (환경부 자료 참고)

- 그동안 병물 아리수를 통한 플라스틱 줄이기 시도는 계속되어왔다. 우선 일회용 페트병 사용 자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는 병물 아리수를 재난이나 단수 등 꼭 필요한 상황에만 최소량 공급하고 있다.
- 또 페트병 제작시 플라스틱 사용량을 19g에서 14g으로 26.3% 감량한 것을 시작으로 이용자 편의 개선 및 효과적인 재활용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는 무(無)라벨로 출시하고 있다. 이외에도 제조일자 인쇄 등에 화학 염료(잉크)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레이저로 각인 처리했다.

< 병물아리수 용기 탈(脫)플라스틱 개선 실적 >

2018년	페트병 중량 26.3% 경량화 (19→14g)
2020년	무라벨 병물 아리수 출시
2022년	잉크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레이저마킹 도입(제조일자 표기)
2023년	재생원료 30% 병물아리수 시범생산 (8만병)
2024년	재생원료 100% 병물아리수 생산

- 시는 병물아리수의 100% 재생플라스틱 사용은 세계적으로도 한발 앞선 탈 플라스틱 정책이자 적극적 환경보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. 아울러 공공이 재생원료 사용에 앞장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한 선도 모델로 민간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.
- 실제로 환경부와 유럽연합(EU)의 재생원료 사용목표는 '30년까지 30%며 글로벌기업 코카콜라사, 펩시사 등도 '30년까지 50%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

- 이와 함께 서울시는 병물 아리수는 물론 상수도 시설물에도 재생원료를 사용한 밸브, PE관, PVC관 등의 도입방안도 검토해 순환경제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.



- 현재 서울아리수본부는 올해 영국에서 열리는 ‘RECOUP Awards’에 재생플라스틱 100% 병물아리수 출품을 준비 중이다. 비영리단체 RECOUP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순환적인 플라스틱 가치사슬을 선도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.
- RECOUP에는 코카콜라, 맥도날드, 네슬레, 미국 브래드포드 시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기업 및 지방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.

-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“100% 재생원료를 사용한 병물아리수의 생산은 정부와 세계 도시보다 훨씬 앞선 순환경제의 모범 사례이자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지속적 행보 중 하나”라며, “앞으로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재활용 방안을 추진해 2050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※ 붙임: 병물 생산 및 병물 아리수(재생 100%) 관련 사진



▲ 식품안전경영시스템(ISO 22000)을 인증 받은 서울의 아리수
(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내 병물 생산시설)



병물 점자 표기(350ml)

나는 병물 아리수

